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어찌해야 본래의 그 자리 알 수 있느냐

## 철야정진법문 ①

자운 선생, 서운 선생. 여러분 많은데 내가 미안한 것이 있어요. 사실로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나 여러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이 문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 화로 하나 갖다 놓고 숯 두어 가마니 갖다 놓고 숯을 피워야 됩니다. 이 문 다 닫고, 그리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훨씬 다를 겁니다. 여러분 달라. 하하하. 어떻게 됩니까. 문을 때지 않고 여기 큰 화로 갖다 놓고 숯을 이글이글 해서 팔쪽 같은 땀을 뻘뻘 내서 그리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신다고 해서 문 다 때고 이것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84년 하계 철야정진, 일주일 철야정진에서 법문중인 백봉 김기추 거사

왜 그런지. 우리는 한 고개 넘어야 되거든요.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깊은 인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숯장사가 없어요. 숯장사도 없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만도 모르겠습니다. 금년 겨울이나 명년 여름쯤 되면 말이지 숯을 몇 가마니씩 사서 그렇게 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번엔 한 시간에 한 번 설법하는데 십분간 시간 제한을 받았습시다. 너무 무정해요. 그래도 한 삼십분 해야 되는데 하루에 세 번 할라하면 십분이다 이것이거든요. 내가 또 시킨 대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하하.

그러기 때문에 요점만 들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실은 우리가 불법 이리지만, 어디 불법이 일 년 이태만 됩니까? 적어도 수천 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에 불법의 대의는 조금도 변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만치도 변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한다는 것은 이 불법이 작용을 해, 방편을 써,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한대 주로 사람을 본위로 해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 해야 본래의 그 자리, 영성한 그 자리를 알 수 있느냐. 방편입니다. 작용하는 방편.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이 불교 공부 아닙니까? 사실로 우리는 지금 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바

로. 그런데 나는 냐. 나이가 많으니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작용 밑에서 본래의 그 자리, 본래의 소식, 본래의 절대성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작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느냐. 이런 방편, 이걸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하니 이 방편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가만 보니 다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를 수가 없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분(分)의

데 그런 분들이 좀 드물었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가도 가도 끝없이 땅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중학교 일학년만 되면 벌써 지구가 허공중에 떠 있는 도리를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편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요새는 우리 몸뚱이 이 것이 내 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대개 압니다. 내 의 관리물은 필지언정 소유물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요새 이걸 아는 것을 많지 않다는 거 뿐이지 대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그렇구나. 나는, 이 몸뚱이 내 의 소유는 아니다. 그럼 나는 뭐고, 이겁니다. 나는 뭐고? 몸뚱이 내 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놈이거든요. 이놈이 뭐인 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편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도 반듯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성하는 것, 견성하는 것 쉽습니다. 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남이 들어보시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이런 말 하지 마시오. 욕 듣습니다. 미쳤다고 이래 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미친 사람 말이다 이래 합니다.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견성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없어. 이걸 가지고서 바깥을 삼아서 하는 얘깁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작용하는 방편을 알기 위한 것이 불교 공부 아닙니까? 본래의 절대성 자리를 아는 것이 바로 방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

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영 방편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방편을 달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방편을 달리 안 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로 하고, 이전 어른들은 공부를 하는데 어떤 시대에 처해 있었느냐. 제일 첫째 우리가 사는 지구, 이것도 가도 가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에는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새 그거 아니에요. 지구가 허공중에 떠 있는 도리를 압니다. 이전에 만약 우리가 사는 지구가 허공중에 떠 있다 이 도리를 알았다면 대오 견성한 사람입니다. 이만 저만한 견성이 아닙니까. 그런

# 자존(慈尊)은 삼보(三寶)의 자비스러운 어른

## 3. 현향계(獻香儀)

戒香定香慧香解脫香解脫知見香光明雲臺 遍法界供養 十方三寶慈尊前(一拜)

우리의 몸이나 집에 피우는 향이라면 유향(乳香), 육계향(肉桂香), 소향(素香), 몰향(沒香), 말향(抹香), 사향(麝香), 용연향(龍涎香) 등이 있지만, 수행자(修行者)가 피워서 올리는 향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향의 설명에 앞서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의 구성 요소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이를 오온(五蘊)이라고 한다. 첫째 인간의 몸뚱아리는 물질로 되어 있다. 즉 색(色)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하는 감각기관(感覺機關), 센스 올간으로서의 수(受)가 있다. 받아들인 인상(印象)은 상(想)이다. 빛이다, 열골이다, 산이다, 하늘이다, 하는 것. 그리고 행(行)은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인도 말로 삼스카라(Samskara)라고 한다. 산에는 골짜기가 있고 숲이 우거지고 골짜기에는 물이 나고, 여기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노닌다. 이렇듯 산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 있다. 다시 말하여 가감승제(加減乘除)의 법칙이 있고 곱하고 쪼개고 하는 데서 산수며 수학(數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다. 개념이란 사회, 경제, 국가, 정치, 정의, 인류 따위로 정의를 내리고 규정짓고 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을 이른다. 인간이요, 부부요, 부모요, 군신이요 하는 것이 다 개념이다. 다섯째 의식은 인식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이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오온으로서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또한 신성하고 거룩한 것도 역시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계는 좋은 행동이다. 좋은 행동은 세상을 향기롭게 한다. 정은 사람이 이리저리 요란스럽게 흔들리지 않고 단정되어 있는 것 그러한 행동. 천하가 다 동요되어도 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도 향이 된다. 인도 말로는 사마디(Samadhi)라고 한다.

셋째의 혜(慧)는 큰 지혜를 이름인데, 날레지(Knowledge)가 아니라 위즈덤(Wisdom) 덕행(德行)있는 지혜(智慧)다. 충무공(忠武公)의 경우와 같은 덕행있는

지(智)가 세상을 대단히 향기롭게 한다.

넷째의 해탈(解脫)이란, 모든 것을 초탈하고 벗어났다는 것으로서 특 특인 사람을 가리킨다. 고지식하다거나 오색하다거나 하지 않은 해탈한 위대한 것은 향으로 여겨진다.

다섯째의 해탈지견(解脫知見)이란 중생(衆生)으로 하여금 해탈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知識)과 교화력(教化力)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커다란 향이다. 이렇듯 신성(神聖)한 다섯가지 향을 피워 올리면 그러면 이것은 광명(光明)을 발하는 구름덩이처럼 영기어 대(臺)를 이루어 가지고, 이 세상 우주 법계(法界)안에 두루 가득 차고, 이를 시방삼보(十方三寶)와 자존(慈尊)앞에 공양한다는 것이다.

시방(十方)은 동서남북(東西南北)의 사유(四維)와 상중하(上中下)의 방위(方位)를 의미한다. 상중하는 케스트 즉 계급을 이르는 말이고, 여기에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도 뜻하는 것이다. 우리 말로 현재를 시방이라고 하지만 이는 시방을

“ 인간의 몸은 오온으로 구성 계는 좋은 행동을 말하는 것 몸뚱아리를 깨끗이 청소하면 어떤 손님이 받아들일 수 있다 ”

가리키는 것으로 시방이 곧 현재라는 대단히 의미심장(意味深長)한 뜻이 된다.

삼보(三寶) : 불보(佛寶) · 법보(法寶) · 승보(僧寶)의 세가지. 불(佛)은 광명성(光明性)을 뜻함이나, 맑고 밝은 것. 법(法)은正大성(正大性)이며, 바른것. 승(僧)은 화합성(和合性)으로 사이좋게.

자존(慈尊)은 삼보(三寶)의 자비스러운 어른. 그러니까 우리는 몸뚱아리의 집을 깨끗이 소제하고, 향을 피웠으니 이제 어떠한 손님이라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이다.

4. 귀경례(歸敬禮) 至心歸命禮三界大師四生慈父大恩教

主我等本師釋迦牟尼佛(一拜)

귀경(歸敬)은 귀명(歸命)과 같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하다. 귀명이라는 이 두 글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돌이켜 절합니다 하는 것이다. 원효대사(元曉大師)는 이를 풀이하여 시능귀상(是能歸相)이라 하였다. 능히 돌아가는 양상(樣相)이란 말이다.

능귀상자(能歸相者)는 능히 돌아가는 양상이란 것은 경순의(敬順義)라,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뜻이며, 또한 취향의(趣向義)라 나아가서 향하는 뜻이 있고, 이는 두 가지 다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귀(歸)는 경순(敬順)과 취향(趣向), 즉 공경하고 순종하는 뜻과 나아가서 행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명(命)은 목숨, 명근(命根) 즉 목숨 뿌리, 명근이 떨어지면 그만 죽어 버린다. 이 명근은 총어제근(總御諸根)이라고 하여 모든 기관을 거거해 나간다. 안근(眼根), 즉 공경하고 순종하는 뜻과 나아가서 행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명근이 떨어지면 그만 죽어 버린다. 이 명근은 총어제근(總御諸根)이라고 하여 모든 기관을 거거해 나간다. 안근(眼根), 즉 공경하고 순종하는 뜻과 나아가서 행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명근이 떨어지면 그만 죽어 버린다. 이 명근은 총어제근(總御諸根)이라고 하여 모든 기관을 거거해 나간다. 안근(眼根), 즉 공경하고 순종하는 뜻과 나아가서 행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최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영남범패학인 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3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래

### <진주교육원>

- \* 입교일시 :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 다루는 법
-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 문의전화 : ☎ 055)747-8419
-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창

# 호법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 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향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 선원장 구룡 합창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 \* 스님께 알려드립니다 \*

스리랑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사리구)를 중창불사에서 뜻은 두신 스님들께 보시하고자 하오니 인연맺을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장 구룡 합창  
[010-5367-1340]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책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대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